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4, pp.123-157
<https://doi.org/10.29212/mh.2020..114.1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의 동북 9성 개척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윤경진*

1. 머리말
2. 西京 출정 배경과 주력군 편성
3. 여진 정벌의 목표점과 전략
4. 고려의 城 상실 사례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예종대에 진행된 여진 정벌과 동북 9성 개척은 불과 2년 만에 9성을 여진에게 돌려줌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 경험은 이후 고려의 북방 영토의식의 토대가 되었고 조선으로 계승되었다.¹⁾

* 경상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동북 9성에 대한 고려 및 조선시대 인식의 추이에 대해서는 이정신, 「고려·조선시대 윤관 9성 인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참조.

그런데 그 범위에 대한 자료적 문제로 조선후기 실학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 관건은 북방 경계로 인식되었던 公嶮鎭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로 모아졌다. 일제시기 일본인 학자들이 동북 9성을 함흥평야 일대에 비정한 뒤 이것이 한동안 정설로 자리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학계는 공험진이 두만강 북쪽 700리에 있었다는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를 신뢰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지만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는 전해지던 말을 채록한 것이었고, 그 내용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가 큰 것이었다. 무엇보다 실증적으로 이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찍이 몇몇 실학자들은 이를 비판하고 동북 9성이 吉州 이남에 분포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두만강북설을 지지하는 데에는 자국의 영토를 확장해 보려는 입장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 학계가 동북공정에 수반하여 함흥평야설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론의 차원에서 다시 두만강북설이 주목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주장에 반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증적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밖에 동북 9성을 두만강 이남, 또는 마천령 이남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²⁾

그런데 근래 『고려사』 지리지의 동북 9성 연혁에 대한 분석적 이

2) 동북 9성의 범위에 대한 연구 상황은 다음 논고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따로 상술하지 않는다.

권영국,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史學研究』 115, 2014.

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鎭 立碑’ 문제」, 『歷史와實學』 61, 2016. 한편 최근에 다시 두만강북설을 편 견해가 있으나(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 9성의 위치 연구」 『仙道文化』 23, 2017), 기존 주장들과 동일한 실증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조선초기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에 대해서는 윤경진,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척과 영토의식 : 公嶮鎭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참조.

해를 토대로³⁾ 길주가 북방 경계였다는 실학자들의 설을 재확인하고, 그동안 하나의 전제처럼 간주되었던 공험진의 立碑가 실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처음 6성 개척 때 공험진 지역에 古碑(마운령비로 추정)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고구려의 비’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 舊地의 수복을 표방했던 것이며, 이것이 고려말 영토 개척 과정에서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는 내용으로 변형되었다고 이해하였다.⁴⁾

하지만 범위 설정만으로 동북 9성에 대한 이해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 개척과 상실, 환부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9성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9성을 환부하는 배경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그 일환이다. 그동안 기록에 나타나는 여진의 집요한 공격과 반환 요청, 방어에 어려움 등과 더불어 고려 정계의 내부 사정 등이 환부 이유로 언급되었다.⁵⁾ 이에 대해 고려가 9성 개척의 명분으로 내세운 고구려 구지의 수복이라는 주장을 遼(거란)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음이 지적되었다. 고려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압록강 방면의 영토 경계를 동요시킬 수 있었고, 이를 우려한 요가 고려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결국 환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이러한 성과에 의해 동북 9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구체화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본고는 그러한 문제를 모아서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3) 윤경진, 「고려후기 東北面の 지방제도 변화 : 州鎮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2, 2015.

4)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5) 鄭修芽 「尹瓘勢력의 形成 : 尹瓘의 女眞征伐와 관련된 몇 가지 問題의 檢討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66, 1988.

6) 윤경진,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震檀學報』 128, 2017①.

첫째, 고려군이 開京이 아니라 西京에서 출정식을 갖고 동계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진 정벌의 명분과 서경의 역사성을 매개로 고구려계승의식이 자연스럽게 지적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北界 병력의 동원이라는 맥락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발해 유민의 북계 정착이라는 前代 이래의 상황과의 관련성도 생각해 볼 것이다.

둘째, 고려군이 여진을 정벌하며 도달하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출정 당시 계획한 공격 목표점이 있었을 것이고, 이에 맞추어 고려군의 전략도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초기의 개척 범위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동북 9성의 범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준거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伊板嶺(마천령)이 당초의 목표점이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남북 양방향에서 공격하는 전략이 구사되었음을 제시할 것이다. 이는 동북 9성이 길주 이남에 분포한다는 입론과 조응한다.

셋째, 기존에 영토 개척과 축성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동시에 ‘상실’의 사례도 상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설치 과정의 9성과 철거 과정의 9성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추가 축성과 더불어 상실 또는 폐지 사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철거 과정에 보이지 않는 宜州와 平戎鎮은 철거 이전에 여진에게 빼앗겼고, 공험진은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면서 폐지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⁷⁾ 고려의 상실은 여진에게는 탈환을 의미하므로 이에 관한 정황이 『金史』를 비롯한 여진쪽 기록에 나타날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다.

7) 윤경진, 위의 논문.

2. 西京 출정 배경과 주력군 편성

예종 2년(1107) 여진 정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원정군이 開京이 아니라 西京에서 출정했다는 점이다. 이 해 윤10월 예종은 출정을 앞두고 개경의 順天館 南門에서 閱兵하였고 尹瓘과 吳延寵을 각각 원수와 부원수로 임명하였다.⁸⁾ 그리고 11월에 서경에 행차하여 12월에 威鳳樓에서 윤관 등에게 鈇鉞을 주어 출정케 하였다.⁹⁾ 개경에서 지휘관을 임명해 놓고 실제 출정은 서경에 가서 진행한 것이다.

출정군은 서경에서 東界로 이동하였다. 앞서 개경에서 열병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대는 개경에서 곧바로 동계로 진입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에서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면, 서경에서 출정식은 가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서경에 행차하였다. 당시 日官이 주청하기를, “마땅히 서경에 임어하여 장수를 파견하십시오”라고 하므로 이 행차가 있었다.¹⁰⁾

위에는 서경 행차가 日官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나 의미는 나와 있지 않다지만,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는 서경과 여진 정벌의 상징적 관계이다. 그것은 고구려계승

8) 『高麗史』 권12, 睿宗 2년 윤10월 壬寅, “以將伐女眞 御順天館南門閱兵 分賜銀布酒食 以尹瓘爲元帥 吳延寵爲副元帥”

9) 『高麗史節要』 권7, 睿宗 2년 12월, “王御威鳳樓 賜尹瓘吳延寵鈇鉞 以遣之”

10) 『高麗史』 권12, 睿宗 2년 11월 庚午, “幸西京 時 日官奏 宜御西京 以遣將帥 故有是行”

의식으로 모아진다. 원정의 성과와 의의를 담은 林彦의 「英州廳壁上記」에는 여진 정벌의 명분으로서 고구려계승의식이 명시되어 있다. 곧 여진이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던 부류라고 전제하고, 이곳에 있는 ‘고구려 古碑’를 내세워 이곳이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상실한 곳을 이번에 수복했다는 것으로 원정의 의의를 제시하였다.¹¹⁾ 이러한 이념은 여진 정벌 당시부터 이미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보면, 서경 출정식은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서경 출정의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숙종 9년(1104) 정벌 때에는 개경에서 출정하였다. 이 해 정월 林幹을 判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고 宣政殿에서 부월을 주어 보냈다.¹²⁾ 임간이 패전한 후 2월에 다시 윤관을 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삼고 重光殿에서 부월을 주어 보냈다.¹³⁾ 양자 공히 임명과 출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종 때 출정에서 일관의 요청은 지휘관을 임명한 뒤 28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종은 5일 뒤 서경에 도착하였고,¹⁴⁾ 이로부터 10일 만에 원정군이 동계에 도착하였다.¹⁵⁾ 그 사이에 윤관 등에게 부월을 내리는 출정식이 거행되었다. 지휘관 임명 후 서경 행차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된 것과 달리 도착 후에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11)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女眞本勾高麗之部落 聚居於盖馬山東 世脩貢職 被我祖宗恩澤深矣 (중략) 而本勾高麗之所有也 其古碑遺跡 尙有存焉 夫勾高麗失之於前 今上得之於後 豈非天賦”

12) 『高麗史』 권12, 肅宗 9년 정월 癸未, “王以門下侍郎平章事林幹 判東北面行營兵馬事 御宣政殿 授鈇鉞”

13) 『高麗史』 권12, 肅宗 9년 2월 乙丑, “以樞密院使尹瓘 爲東北面行營兵馬都統 御重光殿 授鈇鉞遣之”

14) 『高麗史』 권12, 睿宗 2년 11월 乙亥

15) 『高麗史節要』 권7, 睿宗 12년 12월 乙酉, “瓘延寵至東界 屯兵於長春驛”

주목할 부분은 대규모 병력이 개경에서 서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라면 불과 5일만에 서경에 도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국왕의 행차는 이보다 훨씬 더 소요된다. 일례로 문종 7년(1053)의 행차를 보면, 9월 丙戌에 출발하여¹⁶⁾ 10월 10월 庚子에 대동강에 도착하였다.¹⁷⁾ 15일이 걸린 것이다. 예종 2년의 서경 행차는 국왕의 행차로 보더라도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인데, 여기에 대규모 부대의 이동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 제반 준비가 서경에 갖추어진 상태에서 국왕 일행과 지휘관, 그리고 일부 병력 정도만 서둘러 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개경에서 열병한 부대는 소규모이거나 개경에서 바로 동계로 행군했을 것이고, 지휘관이 인솔하고 출정한 주력 부대는 서경에 집결한 별도의 병력이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 병력은 北界에서 징발된 군대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여기서 別武班 편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¹⁸⁾ 윤관은 숙종 9년의 패전 이유를 “적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賊騎我步] 대적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말을 가진 자[有馬者]는 神騎軍으로, 말이 없는 자는 神步軍을 비롯한 여러 兵種으로 편성하였다. 그리고 승려로 편성된 降魔軍을 두었다.

그러나 이렇게 충원된 군사들이 원정군의 주력이 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징발 대상이 상시적인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었고 징발과 동원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종 원년(1106) 11월에 시행된 閱兵이¹⁹⁾ 사실상 이들이 징발된 후 처음 취한 훈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高麗史』 권7, 文宗 7년 9월 丙戌

17) 『高麗史』 권7, 文宗 7년 10월 庚子

18) 別武班에 대한 연구 동향은 金洛珍, 「고려 숙종·예종대 여진정벌과 별무반의 전술체계」, 『韓國學論叢(국민대)』 47, 2017 참조.

19) 『高麗史』 권12, 睿宗 원년 11월 癸巳, “尹瓘吳延寵 閱神騎神步軍於崇仁門外”

따라서 이듬해 진행된 원정에서 실질적인 전투력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²⁰⁾ 이 점에서 별무반 편성 기사 중 다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西班牙 여러 鎭府의 군인은 四時로 훈련하게 하였다.²¹⁾

위 기사는 기존 군인들에 대한 훈련 강화를 담고 있다. 이들은 상시적으로 훈련을 받은 점에서 새로 편성된 군대와 성격을 달리한다.²²⁾ 그리고 여러 진·부의 군인이란 결국 兩界에 배치된 군인들이었을 것이다.²³⁾

앞서 숙종 9년의 원정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원정은 당시 長城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에 대한 대응이었고, 개경에서 파견된 지휘관이 거느린 일부 중앙군과 함께 동계의 현지 병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간을 파견할 당시 李瑋를 西北面行營兵馬使로, 金德珍을 東北面行營兵馬使로 삼은 것을 보면, 동계에 인접한 북계 일부 지역의 병력도 동원되었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당시 임간의 책무는 ‘가서 방비하는 것[往備之]’이어서 적극적인 정벌의 성격은 아니었다. 임간이 훈련되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깊이 들어간 것이 패전의 원인이었다고 지적받은 것 또한 이러한

20) 기병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마상무예를 습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별무반이 기병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특수병을 강화한 보병 중심의 체계였다는 지적도 있다(김낙진, 앞의 논문, 2017, 165쪽).

21)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西班牙與諸鎭府軍人 四時訓練” 兵志에는 ‘西班牙’이 ‘兩班’으로 되어 있다.

22) 김낙진도 이들이 특수병과 함께 실제 전투를 수행하였고, 일반 군현에서 동원된 부대는 축성 등 공역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았다(김낙진, 앞의 논문, 2017, 172~173쪽).

23) 이에 五軍이나 州鎭軍의 전투부대가 그대로 별무반에 편입되었고, 이 때문에 별무반은 전투부대의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李基白, 「高麗別武班考」, 『金載元回甲記念論叢』, 1968 :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199쪽).

성격을 반영한다.²⁴⁾

연이은 패전에 고려는 병력 증강을 위해 전국적인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기병을 증강하였다. 당연히 북계 병력이 더 큰 규모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새로 편성된 군대의 한계와 중앙군의 수적 제한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병력 증강은 북계 병력의 투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서경에 집결시킨 뒤 동계로 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휘관 임명 후 서경 행차까지 소요된 한 달은 바로 북계 병력의 편제와 이동을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숙종 때 마련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숙종은 동왕 9년 5월 南京 건설을 마친 후²⁵⁾ 7월에 남경에 행차하여²⁶⁾ 10월에 돌아왔다.²⁷⁾ 그리고 이듬해 8월 다시 서경에 행차하였다.²⁸⁾ 이 행차의 배경으로는 남경 건설로 위상 저하가 우려되는 서경을 위무하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남경 건설은 숙종 6년(1101)에 시작되었고,²⁹⁾ 즉위 후 서경에 간 적이 없던 숙종은 동왕 7년에 처음으로 서경을 다녀왔다.³⁰⁾ 남경 건설에 따른 서경 위무는 이 행차에서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숙종 10년(1105)의 행차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숙종이 여진 정벌 실패 후 이를 다시 실현할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였음을 감안하면, 서경 행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원정을 위한 준비에 있었을 것이다. 특히 숙종은 서경 순행 중 위독해지고 결국 돌아오는 길에 사망하였다. 이는 당시 행차가 무리를 무릅쓰고 강행

24) 『高麗史節要』 권7, 肅宗 9년 2월, “幹又邀功 引不教之兵 遽出與戰 敗死者大半”

25) 『高麗史』 권12, 肅宗 9년 5월 甲午, “南京宮闕成”

26) 『高麗史』 권12, 肅宗 9년 7월 戊戌, “幸南京”

27) 『高麗史』 권12, 肅宗 9년 10월 辛亥, “王還宮”

28) 『高麗史』 권12, 肅宗 10년 8월 乙亥, “幸西京”

29) 『高麗史』 권11, 肅宗 6년 9월, “是月 置南京開創都監”

30) 『高麗史』 권11, 肅宗 7년 7월 庚戌, “幸西京”

된 것임을 짐작케 하는데, 그것이 여진 정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윤관이 별무반 창설을 건의한 시점은 숙종 9년 12월이다.³¹⁾ 이듬해 서경 행차는 그에 이어 전쟁의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었으며, 서경의 출정은 이 때 이미 입안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계는 동계에 비해 州鎮의 수도 많고 주둔군의 규모도 컸다. 거란과 전쟁을 치른 데다가 이후 興遼國의 반란 등 요동 지역의 정세 변동도 있었다. 압록강 동안의 保州 지역을 두고 거란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재연될 여지도 상존하였다. 자연히 고려의 군사력은 북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³²⁾

또한 이 지역에는 국초 이래 이주하여 토착화된 부류들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발해 유민이다. 발해 멸망 후 고려에 유입된 유민들은 대부분 북계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된다.³³⁾ 태조 17년(934) 발해 태자 大光顯이 내투할 때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온 것으로 되어 있고,³⁴⁾ 태조 22년(939) 한 해에 2천여 호가 내투하였다.³⁵⁾ 경종 4년(979)에도 발해인 수만이 내투한 기사가 있다.³⁶⁾ 과장은 있겠으나 많은 무리가 온 것은 분명할 텐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북계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잡아간 발해인으로 요동 지역에 2개 州를 설

31) 『高麗史』 권81, 兵1 五軍 肅宗 9년 12월 “尹瓘奏 始置別武班”

32) 『高麗史』 兵志 州縣軍조에 정리된 양계 군사 규모를 보면, 行軍 수에서 북계는 약 39,000여 명, 동계는 약 11,000여 명으로 집계된다. 북계의 군역이 동계보다 4배 가까운 규모인 것이다(역수 계산은 李基白, 「高麗州縣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46~247쪽 및 250~251쪽 참조). 또한 동계는 동해안에서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登州 이남의 병력이 투입될 여지가 적었다.

33) 李種明, 「고려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1968, 218쪽.
金昌謙, 「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溘西豪族과 渤海流民에 대한 政策研究」, 『成大史林』 4, 1987, 76~79쪽.

34) 『高麗史』 권2, 太祖 17년 7월, “渤海國世子大光顯 率衆數萬 來投”

35) 『高麗史』 권2, 太祖 22년, “是歲 渤海人朴昇 以三千餘戶 來投”

36) 『高麗史』 권2, 景宗 4년, “是歲 渤海人數萬 來投”

치한 것은 당시 북계에 정착한 발해인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다.³⁷⁾ 이들은 고려가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³⁸⁾ 그 뒤 현종대 흥요국 반란으로 다시 많은 수의 발해인이 내투하였다.³⁹⁾ 이들 또한 북계에 정착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나 현지인화된 그 후예들이 여진 정벌에 우선적으로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해 유민을 위시한 북계 주민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성종 때 崔承老의 상서에서 그 단서가 발견된다.

바라건대 要害를 택하여 강역을 정하고 土人으로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할 수 있는 자를 뽑아 그 防戍에 충원하십시오. 그리고 偏將을 뽑아 統領하게 하면 京軍이 번갈아 방수하는 수고를 면하고 군량을 수송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⁴⁰⁾

위 건의는 거란과 접하고 있는 서북방의 방어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최승로는 ‘土人’을 선발하여 방수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인이란 서북방에 도착한 무리를 말하는데, 여기에 남도에서徙民된 부류 외에 국초부터 유입되어 정착한 발해 유민도 다수 포함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발해 유민이 북방 방어를 위한 군사력으로 운용되었을 것인데, 이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大道秀 등 발해계 인물이 활약한

37) 『遼史』 권48, 地理2 東京道 寧州, “統和二十九年 伐高麗 以渤海降戶置”

『遼史』 권48, 地理2 東京道 歸州, “太祖平渤海 以降戶置 後廢 統和二十九年 伐高麗 以所俘渤海戶 復置”

38) 윤경진,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②, 375~376쪽.

39) 『高麗史』 권5, 顯宗 21년 5월 乙丑, “契丹水軍指麾使虎騎尉大道李卿等六人來投自是 契丹渤海人來附甚衆”

40) 『高麗史』 권82, 兵2 鎮戍 成宗 원년 6월, “乞擇要害 以定疆域 選土人能射御者 充其防戍 又選偏將 以統領之 則京軍免更戍之勞 菟粟省飛輓之費”

것을 통해 뒷받침된다. 그는 최승로가 말한 ‘偏將’에 해당하며 발해계 주민으로 구성된 군대를 지휘했을 것이다. 이러한 前史에 비추어 여진 정벌에 북계 주민을 동원하는 방안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⁴¹⁾

한편 여기서 발해계 주민과 별무반 중 신기군의 편성과의 관련성이 유추된다. 별무반 편성에서 말을 가진 사람을 신기군으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바로 기병이 될 수는 없다. 말을 가진 자의 편성이 가지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말의 ‘정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후기에는 백관이나 사원의 승려로부터 말을 내게 하여 戰馬에 충당하는 조치가 자주 보인다.⁴²⁾ 이것은 강제적인 조치로서 ‘정발’로 표현되는 사례도 보인다.⁴³⁾ 이렇게 말을 내는 사람들은 별무반에서 말하는 ‘有馬者’와 현실적으로 다를 수 없다. 그렇다면 별무반의 ‘有馬者’ 편성은 실제 이들을 기병으로 쓰는 것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말 징발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징발하는 데 상응하여 그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하는 기병이 상정된다. 고려말의 사례는 대개 기병의 수적 증강보다는 말의 결핍이나 노쇠화로 허술해진 기병을 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원종 14년(1273) 사례를 보면, 民馬를 빼앗아 군사 여원 말과 바꾸는 내용도 있어⁴⁴⁾ 이러한 원리를 짐작할 수 있다.

41) 조선초기의 사례지만, 내부한 女眞 幹都里 등을 內地에 옮겨 藩屏으로 삼았다고 한 것도 비슷한 원리를 내포한다(『高麗史』 권46, 恭讓王 4년 3월 庚子, “幹都里兀良哈諸酋長 皆授萬戶千戶百戶等職有差 且賜米穀衣服馬匹 諸酋感泣 皆內徙爲藩屏”)

42) 몇 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高麗史』 권82, 兵2 馬政 忠烈王 13년 5월, “令百官出戰馬及器皿”

『高麗史』 권82, 兵2 馬政 恭愍王 8년 12월, “令承宣以上出馬一匹 又括禪教各寺僧徒馬 以充軍用”

『高麗史』 권82, 兵2 馬政 恭愍王 11년 10월, “令文臣出戰馬”

43) 『高麗史』 권82, 兵2 馬政 辛禑 원년 9월, “徵諸寺住持僧戰馬各一匹”

44) 『高麗史』 권82, 兵2 馬政 元宗 14년 2월, “令諸王 宰樞 四品以上 各出馬一匹 五六品二員 并出一匹 或奪民馬 以換軍士瘦馬”

이에 대해 별무반은 기존의 운영 규모 이상으로 기병을 증강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말을 징발하게 되면 기존 병력 자원 중 기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당시 고려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존재는 북계 주민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는 최승로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할 수 있는 자”의 동원을 말한 것에서 유추된다. 이 때 발해계 주민은 본거지나 정착지에서 전쟁 상대인 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내투 이후 여러 代가 내려왔다는 점에서 ‘발해인’으로서 성격이 많이 희석되었겠지만, 지역 여건상 과거의 전통을 상당 부분 유지했을 것이다.

遼가 혼란에 빠진 예종 12년(1117) 요에서 내투한 부류 중에 ‘渤海’가 따로 언급되고 있어⁴⁵⁾ 고려에서 발해를 여전히 구분되는 범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북계에 정착한 발해 유민의 후손들도 상당 기간 발해의 정체성과 습속을 유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계 주민은 기병을 활용한 전술 운영에서 남도 출신보다 훨씬 적합한 존재였다. 이 점에서 실제 신기군으로 편성된 주력 부대는 북계 병력, 그 중에서도 발해계 주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⁶⁾

이처럼 북계의 상주 병력, 또는 현지인들이 대대적으로 전쟁에 투입되었다고 할 때, 이들이 개경에 집결했다가 동계로 이동하는 것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남도 지역에서 충원된 이들은 개경에 모여 열병을 거쳤겠지만,⁴⁷⁾ 북계의 병력은 서경에 모인 뒤 바로 동

45) 『高麗史』 권14,睿宗 12년 정월 壬辰, “渤海五十二人 奚八十九人 漢六人 契丹十八人 熟女眞八人 自遼來投”

46) 김낙진은 당시 여진 정벌에서 기병 작전이 확인되지 않고 주로 守城戰이 주류였다고 지적하였다(김낙진, 앞의 논문, 2017, 174~175쪽). 그러나 기병전은 여진 부락을 소탕하는 ‘공격’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수성전은 축성 후 이를 공격하는 여진에 맞서는 ‘방어’의 성격이므로 그 맥락이 다르다. 고려 원정군이 빠른 시일에 여진 부락을 불태우고 축성을 진행한 것은 초기 공격 전술이 기병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47) 후술하듯이 右軍은 선박을 이용해 길주로 북상하였다. 북계 주민은 이러한 전략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군은 남도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종은 이러한 사정에 맞추어 서경에 행차하여 이곳에서 출정식을 가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고려의 舊都로서 서경의 상징성과 고구려 失地의 회복이라는 명분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다. 앞서 고려는 거란과의 1차 전쟁을 협상으로 마무리하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당시 서회는 압록강 너머로의 진출까지 도모했으나 전쟁 재발을 우려한 성종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성종은 전쟁 과정에서 割地論을 제시한 구신라 계열을 무마하기 위해 경주를 東京으로 삼았다. 이는 기존 고구려계승의식의 후퇴를 의미하였다.⁴⁸⁾

그런데 현종 즉위 후 다시 거란이 침공하였고, 고려는 개경이 함락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北界 諸城이 분전하면서 거란의 공격을 막아내었다. 이 때 북계에 정착해 있던 발해 유민은 전쟁에 공을 세운 동시에 많은 인원이 잡혀가는 피해를 입었다. 고려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였다. 현종 3년(1012) 지방제도 개편에서 동경을 폐지한 것은 그 일환으로서 북계 주민 및 발해 유민의 정체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⁴⁹⁾

예종대의 여진 정벌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진다. 여진 정벌 자체가 고구려 구지의 수복이라는 명분을 걸고 있었다. 이 명분은 이미 국초의 북방 개척에 투영되고 있었다. 여기에 다수의 발해 유민이 정착하였던 만큼, 북계 주민은 타 지역에 비해 고구려계승의식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한 북계 주민이 여진 정벌에서 주력군을 형성하였다. 이들을 서경에 모아 출정식을 가지는 것은 군사 운용의 실용적 측면과 더불어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여진 장벌의 동력으로 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었다. 일관이 서경에서 출정할 것을 청한 것 또한 이러한 요소를 의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48) 윤경진, 앞의 논문, 2017②, 365~372쪽.

49) 윤경진, 위의 논문, 2017②, 372~380쪽.

3. 여진 정벌의 목표점과 전략

동북 9성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 기준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고려가 여진 정벌에서 당초 계획한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영토개척 과정과 그 결과로서 개척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물론 원정 과정에서 그 범위가 미달될 수도 있고, 그보다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1차 원정이 단기간에 승전과 축성으로 귀결된 만큼, 초기의 개척 범위는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북 9성의 범위가 길주를 상한으로 한다면, 고려 원정군의 목표 또한 이와 연관될 것이다. 따라서 원정 목표에 대한 검토는 길주이남설의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고려 원정군의 당초 목표점에 대해서는 다음 두 기사가 발견된다.

① 여진은 본래 말갈의 남은 무리로서 수당 때 勾高麗에게 병합되었다. 뒤에 취락을 이루어 山澤에 흩어져 살며 통일되지 않았다. 이 중 定州朔州와 가까운 곳에 사는 자는 간혹 內附했으나 臣屬했다가 반기를 들었다 하였다. 靺靱와 烏雅東이 연이어 추장이 되어 자못 무리의 마음을 얻어 그 세력이 점차 강해졌다. 伊位 경계에 산이 이어져 있어 동해 연안에서 일어나 우리 북쪽 변경에 이르니 지세가 험하고 거칠어 人馬가 지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한 길이 있어 세상에서 瓶項이라 칭하며 한 구멍으로만 출입할 뿐이라고 하였다. 공을 노린 자가 가끔 건의하여 그 길을 막으면 오랑캐의 길이 끊어질 것이니 군대를 보내 평정할 것을 청하였다.⁵⁰⁾

50)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女眞 本靺鞨遺種 隋唐間 爲勾高麗所并 後聚落 散居 山澤 未有統一 其在定州朔州近境者 雖或內附 乍臣乍叛 及盈哥烏雅東 相繼爲酋長 頗得衆心 其勢漸橫 伊位界上 有連山 自東海岸崛起 至我北鄙 險絕荒翳 人馬不得 度 間有一徑 俗謂瓶項 言其出入一穴而已 邀功者 往往獻議 塞其徑 則狄人路絕 請 出師平之”

② 처음에 조정에서 瓶項을 얻어 그 길을 막으면 오랑캐의 우환이 영구히 끊어질 것이라 하였는데, 그곳을 攻取해 보니 수륙으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⁵¹⁾

위의 두 기록을 연결해 보면 고려의 원정은 伊位 경계상에 있는 瓶項을 차단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伊位’는 ‘伊板’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⁵²⁾ 이에 비추어 보면 고려군의 공격 목표점은 이판, 곧 마천령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기록에서 定州와 朔州는 고려의 長城에 의해 형성된 동여진 방면 경계의 兩端을 표상하며, 산이 이어져 동해안에서 일어나 북쪽 변경에 이른다고 한 것은 개마고원을 가리킨다. 이것은 「영주청벽상기」에서 고려의 개척 범위에 대해 서쪽과 북쪽이 개마산이라고 한 것에 조응한다. 이판령은 이 개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한 고개이다. 고려군은 정주 관문을 나서서 이판령 병항을 목표로 정벌을 진행한 것이다.⁵³⁾

고려의 공격 전략도 이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다음 두 기사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① 左軍이 石城 아래에 도착하여 여진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譯官 戴彦을

51)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初 朝議以得瓶項 塞其徑 狄患永絕 及其攻取 則水陸道路 無往不通 與前所聞絕異”

52) 실상 ‘位’와 ‘板’은 글자가 유사하여 기록 과정에서 이표기가 발생할 수 있다.

53) 쌍성총관부 수복 직후인 공민왕 6년 고려 都堂에서 行省에 보낸 글을 보면, “若於 伊板隘口 設置關防 以謹出入 庶無後患(『高麗史』 권39, 恭愍王 6년 8월 戊午)”이라는 구문이 보인다. 여기서 ‘隘口’는 ‘瓶項’과 같은 의미로서 이판령 병항이 가지는 지형적 특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려사』 윤관 열전에서 사망으로 길이 트여 있었다고 한 것은 원정 실패의 명분적 이해와 관련된다. 곧 당초 목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적시함으로써 당시 원정을 국력을 소비한 무모한 행위로 평가한 것이다. 이는 윤관이 명분없는 전쟁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당한 것과 연결된다(『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瓘等妄興無名之兵 敗軍害國 罪不可赦 請下吏”).

보내 항복을 설득하였다. (중략) 또 崔弘正金富弼과 錄事 李俊陽을 보내 伊位洞을 치게 하니 적이 맞서 싸웠다. 오래 걸려 이겼다.⁵⁴⁾

②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니 文冠은 左軍兵馬使로 참전하였다. 石城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福州城을 쌓았다.⁵⁵⁾

위의 두 기사는 여진 정벌 초기의 전황을 정리한 것이다. ①은 左軍이 石城과 伊位洞을 공격한 상황을 담고 있고, ②는 석성을 함락한 후 福州을 설치한 내용이다. 좌군의 지휘관이 바로 文冠이어서 두 기사가 같은 전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진은 석성을 지키며 고려군과 일전을 치렀고, 고려는 拓俊京의 분전으로 성을 함락할 수 있었다.⁵⁶⁾

그런데 ①의 내용을 보면 석성 함락 후 곧이어 伊位洞을 공격하고 있다. ‘伊位’는 앞서 언급한 대로 ‘伊板’과 같은 명칭이므로 이위동은 이판령 인근에 위치하며,⁵⁷⁾ 석성 또한 이곳에서 멀지 않을 것이다. 고려는 석성을 함락한 후 이판령 방면으로 진출하였고, 이곳에서 여진을 격파함으로써 이판령의 길목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전투로 설치된 복주 또한 이판령에 인접할 것인데, 이 점에서 복주를 端州 연혁에 연결한 『고려사』 지리지 기록은 타당성을 가진다.⁵⁸⁾

54)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左軍到石城下 見女眞屯聚 遣譯者戴彥諭降 (중략) 又遣弘正富弼錄事李俊陽 擊伊位洞 賊逆戰 久乃克之”

55) 『高麗史』 권97, 列傳10 文冠, “尹瓘征女眞 冠以左軍兵馬使從 攻石城克之 築福州城”

56)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遂入石城拒戰 矢石如雨 軍不能前 (중략) 是俊京殺身報効之秋也 遂至石城下 擐甲持楯 突入賊中 擊殺酋長數人 於是 瓘麾下 與左軍合擊 殊死戰 大破之”

57) 이에 앞서 伊位村의 용례가 보인다(『高麗史』 권11, 肅宗 6년 2월 乙巳, “東女眞伊位村都領怪夫等三十人 來朝”).

58) 고려말 東北面の 신설 州鎮 중에서 동북 9성과 연혁이 연결된 것은 咸州와 吉州, 端州 등 세 곳이다. 이 중 단주는 명칭이 달라졌음에도 연혁이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자료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5, 24~30쪽). 이에 비추어 복주의 위치와 설치 과정은 본래 목표점이었던 伊位를 이판령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윤관 열전 기록을 보면, 석성과 이위동의 승전을 끝으로 1차 원정의 전투가 마무리되고, 그동안 각 부대가 달성한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윤관은 정부에 승첩을 고한 뒤 장수들을 보내 地界를 획정하고 英州·雄州·福州·吉州 등 4개의 성을 쌓았다.⁵⁹⁾

그렇다면 길주 방면은 언제 어떻게 진출한 것일까. 당시 출정은 이판령 아래의 복주를 건설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므로 여기서 더 북상하여 길주를 건설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명백히 關門이 설치되고⁶⁰⁾ “적의 경내 깊숙이 들어가 있다”⁶¹⁾는 길주가 복주보다 남쪽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복주가 이판령 남쪽의 단주라면 길주는 이판령 북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으며, 고려말에 설치되는 길주와 같은 곳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길주 방면의 개척이 육로가 아니라 해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판단을 얻을 수 있다. 다음 기사는 이러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

여진 병사 수만이 와서 雄州를 포위하였다. 최홍정이 士卒를 독려하니 무리가 모두 싸움을 생각하였다. (중략) 척준경이 사졸의 찢어진 옷을 입고 밤에 줄을 타고 성을 내려와 定州로 돌아와 군대를 정돈하고, 通泰鎭 길로 가서 也等浦로부터 吉州에 이르렀다. 적을 만나 싸워 크게 이기니 성안 사람들이 감동하여 울었다.⁶²⁾

59) 고려는 곧이어 추가로 中城과 山城을 쌓았는데, 이들이 각각 咸州와 公嶺鎭이다. 두 성의 축조는 英州 등 기존 4城으로 구성되는 영역 안에서 보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는 공험진이 길주 이남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근거가 된다(윤경진, 앞의 논문, 2016, 15~17쪽).

60) 『高麗史』 권13, 睿宗 4년 3월 乙卯, “行營兵馬判官許載金義元等 與女眞 戰于吉州關外 斬三十級 獲其鐵甲牛馬”

61) 『高麗墓誌銘集成』 許載墓誌銘, “一日拓定九城 以兵馬判官 入守吉州 其時九城中 唯吉最近虜境 以故虜攻之日甚”

62)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女眞兵數萬 來圍雄州 弘正訓勵士卒 衆皆思鬪 (중략) 俊京服士卒破衣 夜縋城而下 歸定州整兵 道通泰鎭 自也等浦 至吉州 遇賊 與戰大敗之 城中人感泣”

위 기사는 웅주성이 포위되었을 때 이곳을 탈출하여 원병을 이끌고 온 척준경의 활약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정주로 돌아온 척준경이 야등포를 이용해 길주로 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척준경이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척준경이 구원하고자 하는 곳은 웅주이며, 웅주는 관문이 설치된 길주보다 남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척준경은 해로를 통해 길주로 간 다음, 이곳에서 웅주로 내려온 것이다.⁶³⁾

실제 후대에도 선박 편으로 길주로 들어가는 사례가 보인다.

8년에 왕이 趙墩을 보내 璽書를 가지고 가서 유시케 하니, 조돈이 登州에 이르러 배를 타고 반 달을 가서 海陽에 이르러 새서를 내렸다. 趙小生 등이 조돈을 따라 入朝하려다가 다른 뜻을 품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니 조돈이 바로 배를 타고 돌아왔다.⁶⁴⁾

위 기사는 공민왕 8년(1359)에 조돈이 해양, 곧 길주로 가서 조소생 등을 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조돈은 등주에서 배를 타고 길주로 갔으며, 역시 배를 타고 돌아왔다. 이는 당시 이관령 북쪽으로 갈 때에는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처음 여진 정벌을 통해 4성을 설치하는 과정에도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원정은 석성에 복주를 설치하고 이위동을 확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그보다 북쪽에 있는 웅주와 길주는 이와 다른 방향, 곧 해로를 통해 길주 방면에 상륙한 다음, 공격 목표였던 이관령 방면으로 남하하면서 설치되었다.

길주 방면의 경략은 당시 출정군 중 右軍이 담당하였다. 출정 기

63)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24~25쪽.

64) 『高麗史』 권111, 列傳24 趙墩, “八年 王遣墩齎璽書往諭. 墩至登州浮海 舟行半月 至海陽 賜璽書 小生等 欲從墩入朝 復懷異志 衷甲而待 墩即登舟而還.”

사를 보면, 윤관은 53,000명의 본진을 이끌고 정주 大和門을 나섰고, 金漢忠이 이끄는 中軍 35,700명은 安陸戍를 나섰다. 문관이 이끄는 左軍 33,900명은 정주 弘化門을 나섰고, 김덕진이 이끄는 右軍 43,800명은 宣德鎭의 安海戍와 拒防戍 사이를 나섰다. 그리고 船兵別監과 元興都部署使 鎭溟都部署副使는 船兵 2,600명을 이끌고 道鱗浦를 나섰다.

주목되는 것은 우군이 선덕진의 안해수와 거방수 사이로 나섰다는 점이다. 선덕진은 장성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바다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안해수는 중군이 경유한 안륙수와 대비하여 해안 경비와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곧 우군은 바다 쪽으로 이동한 것인데 이는 바로 선박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선병별감의 지휘 아래 원홍도부서와 진명도부서 관할의 선박이 동원되었다. 이들은 각각 원홍진과 진명현을 출발하여 도린포에 집결했다가 출정하였다. 이 때 동원된 선군 2,600명은 전투 병력이 아니라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인력이며, 이 선박에 탑승하여 이동한 전투 병력이 바로 우군이었다. 이들은 선덕진을 나와 도린포로 이동하여 이곳에 모인 선박을 타고 길주 방향으로 올라가 경락을 진행하였다. 우군의 수가 좌군이나 중군에 비해 많은 것도 이들이 이관령 이북에서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웅주가 포위되었을 때 척준경이 탈출하여 원병을 이끌고 간 것 역시 주변 지역에서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좌군은 내륙 방향의 경락을 담당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고려는 함주-영주-북주-웅주-길주를 연결하는 간선로 외에 갑산 방향으로도 추가 경락을 진행했음이 지적되었다. 고려말 莒州로 비정되는 북청에서 멀리 떨어진 갑산이 길주 방향보다 먼저 개척된 것은 앞서 이 방향의 개척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⁶⁵⁾

65)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27~29쪽.

고려군은 영주에 근거를 두고 加漢村 瓶項 방면으로 진출을 도모하였다. 일차 진출은 실패했지만, 곧이어 여진의 내투가 있었다.

추장 阿老喚 등 403인이 진영 앞으로 와서 항복을 청하였다. 남녀 1,460여인이 또한 左軍에 항복하였다.⁶⁶⁾

위의 기사는 영주성 방면의 진황 설명 중에 등장하는데, 여진이 좌군에 항복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좌군의 거점이 영주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좌군은 영주성을 발판으로 갑산 방면으로도 추가 경략을 수행했던 것인데, 이는 고려의 진군 방향에서 왼쪽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하여 바다 쪽은 오른쪽이 된다.

결국 고려군은 이관령을 목표점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에서 이원적으로 작전을 펼쳤던 것이다. 육로를 통해 이관령으로 진주하는 한편, 선박을 이용하여 이관령 북쪽에 상륙하여 남하하였다. 이와 같이 해로를 이용한 것은 육로 이동 거리가 길어 군대가 지치고 도중에 여진과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표점인 이관령 병항이 좁은 길 하나만 있었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로를 통해 이관령 북쪽에 상륙한 후 남하하며 개척을 진행함으로써 병항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⁶⁷⁾

66) 『高麗史』 권96, 列傳9 尹瓘, “酋長阿老喚等四百三人 詣陣前請降 男女一千四百六十餘人 又降于左軍”

67) 고려는 원정 후 거란에 보낸 表文에서 “여진의 弓漢里(길주)가 본래 고려의 땅이며 근래 수복하여 성을 쌓았다”고 주장하였다(『高麗史』 권96, 列傳9 金仁存, “國家初築九城 使告契丹表稱 女眞弓漢里 乃我舊地 其居民 亦我編氓 近來 寇邊不已 故收復而築其城”), 이 점에서 원정의 목표점을 공한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원정 과정은 길주에 상륙한 후 이관령 방면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최종 목표점은 이관령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공한리가 지목된 것은 결과적으로 길주 지역까지 개척된 것에 따른 서술로 이해된다.

4. 고려의 城 상실 사례

『고려사』에 정리된 여진 정벌 기사는 대부분 고려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다. 특히 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활동에 무게가 실려 있는 탓에 전투 성과 중심으로 기술된 측면도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성의 함락과 상실 같은 피해 상황에 대한 서술은 드물며 내용도 소략하다.

반면 『金史』 등 여진쪽 기록은 당연히 여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적고 있다. 이 또한 관련 인물들의 전과가 부각되는 특성을 지닌다. 다만 『고려사』 기록에 보이지 않는 전황, 특히 고려에 불리한 기록이 자신에게 유리한 기록으로 채용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당시 전황에 대한 보완적 이해가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여진의 시각에 의한 과장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

고려가 여진을 정벌하고 개척한 지역은 9성으로 통칭되지만 기록에 나오는 성은 12개이다. 주지하듯이 축성 기사에 보이는 宜州와 平戎鎮, 公嶮鎮은 철거 기사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축성 기사에 보이지 않는 崇寧鎮과 眞陽鎮, 宣化鎮이 철거 기사에 보인다. 이를 아울러 인정한다면 축성 수는 12개가 되며,⁶⁸⁾ 도중에 일부 성이 추가되는 이면에서 일부가 상실 또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중 공험진은 전략적 가치의 하락으로 도중에 폐지된 것이며, 의주와 평용진은 갑산 방면으로 추가 진출하면서 설치했다가 여진의 공격으로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⁹⁾

이러한 전황과 관련하여 다음 기록이 주목된다.

68) 송용덕, 앞의 논문, 2011, 81쪽.

69) 윤경진, 앞의 논문, 2016, 29쪽.

고려가 曷懶甸에 9성을 쌓으니 渾坦이 이를 공격하였다. 마침 木里門甸에서 적을 만나 오랫동안 힘써 싸웠다. 阿里가 창을 들고 달려나가 그 장수를 진중에서 찌르니 적이 마침내 궤멸되었다. 혼탄이 石適歡과 徒門水에서 군대를 합치니 아리가 앞장서서 적병을 물리치고 그 두 성을 취하였다[取其二城]. 고려가 쳐들어 왔으나 우리 군대가要害를 지키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에 돌아갔다.⁷⁰⁾

위의 기사는 『금사』 斜卯阿里 열전의 것으로서 고려의 동북 9성 개척에 맞서 사묘아리가 아버지 혼탄과 함께 2개 성을 취한 사실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고려는 9성을 축조한 후 여진의 공격으로 두 성을 빼앗긴 것이 된다.

9성 지역 중 길주는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으로 전투가 벌어졌으므로 이 방면에서 개척의 후퇴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9성이 순차적으로 철거된 것에 비추어 두 성은 철거 기사에 열거된 성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상황은 추가 진출한 갑산 방면에서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⁷¹⁾

당시 전환은 영주성을 거점으로 전개된 가한촌 병항 방면의 전투

70) 『金史』 권80, 列傳18 斜卯阿里, “高麗築九城於曷懶甸 渾坦攻之 遇敵於木里門甸 力戰久之 阿里挺槍馳刺其將於陣中 敵遂潰 渾坦與石適歡合兵於徒門水 阿里首敗敵兵 取其二城 高麗入寇 以我兵屯守要害 不得進 乃還”

71) 갈라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하나의 지명 단위가 설정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면, 고려의 장성을 하한으로 하는 갈라전의 범위가 자연 지형의 경계가 분명한 마천령을 넘기는 어렵다. 이 경우 갈라전보다 9성의 축성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그런데 「갈라전의 9성 축조」는 갈라전과 9성이 같은 범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9성 축조 지역이 갈라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곧 갈라전은 여진이 고려에게 빼앗긴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9성은 고려가 여진으로부터 확보한 지역을 표상한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고려와 여진은 木里門甸에서 충돌하는데, ‘甸’이라는 같은 어미를 사용한 것에서 목리문전을 갈라전과 구분되는 인접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목리문전은 추가 개척이 이루어지는 갑산 방면으로 비정할 수 있다. 한편 津田左右吉도 갈라전을 마천령 이남으로 보았다(津田左右吉, 『尹瓘征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1963).

와 연결된다.⁷²⁾ 고려는 두 성을 빼앗긴 후 다시 공격했으나 여진이 요해를 지킴으로써 이를 돌파하지 못하였다. 이 요해가 바로 가한촌 병항으로 판단된다.⁷³⁾ 고려는 처음에 이곳을 넘어 갑산 방면으로 진출하여 성을 쌓았으나 여진의 반격으로 이를 상실하였고, 다시 수복을 도모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외에도 여진에게 성을 상실하는 내용이 보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것은 관련된 성의 위치와 전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먼저 「李坦之墓誌銘」에 다음 기사가 보인다.

걸어서 元興鎮에 이르러 수송선을 빌려 타고 100여 인과 함께 노를 저어 꽃과 섬을 따라 별을 이고 邦頭浦에 이르러 정박하니 배를 내려 雄州城에 들어갔다. (중략) 7일이 지나 유골을 수습하여 함에 넣어 등에 지고 돌아오려는데 강한 적들이 성벽에 달려붙어 그 성을 攻陷하고 승기를 타고 돌격하니 도망가 숨을 방법이 없었다. 몸을 빼내 탈출하여 강가를 따라 桃林浦에 이르렀다.⁷⁴⁾

72) 송용덕은 당시 전투에서 고려가 여진의 공격으로 공협진과 평용진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송용덕, 앞의 논문, 2011, 99쪽). 이는 徒門水를 두만강으로 보고 두 곳이 길주 이북에 있다는 추론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협진을 최북단 경계 지역으로 보고, 평용진 또한 길주 이북, 나아가 두만강 지역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方東仁, 『韓國의 國境確定 研究』, 一潮閣, 1997, 173~175쪽). 『高麗史節要』에는 3성의 추가 축성과 사민에 대해 朴景緯이 비판하며 “更深入狄境 列置城地”라고 한 구절이 있는데(『高麗史節要』 권7, 睿宗 3년 3월), 추가 축성 지역 중 의주는 장성 이남이고 통태진은 정주와 웅주 사이에 있으므로 박경작의 지적은 평용진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의주는 장성 이남의 宜州(예종 때 명칭은 湧州)와 다른 곳이고, 갑산 방면 또한 적경 깊숙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평용진을 길주 이북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金史』에 보이는 徒門水를 두만강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거니와 길주를 구원하러 가다가 공협진에서 전투가 벌어진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73) 가한촌 병항은 북청과 갑산 사이에 있는 요해적인 후치령으로 추정된다.

74) 『高麗墓誌銘集成』 李坦之墓誌銘, “步夏元興鎮 借乘轉輸舡 與百許人 放榜循花島 戴星 至泊邦頭浦 下舡 入雄州城 (중략) 涉七日 拾骸安函 背負將還 迨虜敵蟻附 攻陷其城 乘勝突戰 无有遁逃之地 抽身出走 循江涯 至桃林浦”

‘花島’에 대해서는 섬 이름으로 보기도 하지만, 특정 섬이 항해를 나타내는 ‘衍’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戴星’과 병칭된다는 점에서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

이탄지는 응주에 출정해 있던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직접 응주로 갔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여진이 응주성을 ‘攻陷’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응주는 철거 이전에 상실한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상실한 곳을 철거 대상으로 열거할 이유가 없거니와 응주는 가장 늦게 철거된 곳이다.

여기서 기사 내용을 세밀히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구문은 여진이 응주를 ‘공함’한 후에 “승기를 타고 돌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함 후에도 전투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곧 ‘공함’은 성의 ‘상실’까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돌파한 여진군이 성내로 ‘진입’하여 전투를 벌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응주가 일시 함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진이 이곳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척준경이 원군을 이끌고 가서 구원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고려가 회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진이 응주를 공격하여 함락에 상응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더라도 고려가 이곳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앞서 인용한 사묘아리 열전 기사는 명확히 2개의 城을 ‘取’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려의 반격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응주의 전황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금사』에는 駝吉城의 함락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① 고려가 갈라전에 9성을 쌓으니 阿徒罕이 선봉이 되었다. 고려에서 海島에 주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도한이 무리 30인을 이끌고 밤에 건너가서 그 진영과 목책, 전함을 불태우고 크게 무찔렀다. 마침내 陀吉城을 함락하고 곧이어 8성이 모두 함락되니 공이 최고였다.⁷⁵⁾

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 ‘島’는 ‘鳥’의 오독일 여지도 있는데(윤경진, 2016 앞의 논문, 185쪽, 주 50)), ‘循花島(鳥)’는 낮의 항해를, ‘戴星’은 밤의 항해를 각각 나타내면서 밤낮으로 항해했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75) 『金史』 권81, 列傳19 阿徒罕, “高麗築九城於曷懶甸 幹塞御之 阿徒罕爲前鋒 高麗有屯於海島者 阿徒罕率衆三十人夜渡 焚其營柵戰艦 大破之 遂下陀吉城 旣而八城皆下 功最”

② 幹塞와 烏睹本이 駝吉城을 공격하니 아리는 성벽을 뚫어 문을 만들었는데 날이 저물어 들어갈 수 없으므로 군대로 지키게 하고 아침에 마침내 그 성을 취하였다.⁷⁶⁾

위의 두 기사는 고려의 동북 9성 개척 때 이에 대항한 여진의 아도한과 사묘아리의 활동을 담고 있다. 두 기사에 보이는 陀吉城과 駝吉城은 같은 곳으로, 통상 『고려사』 기록의 길주로 보고 있다.⁷⁷⁾

타길성에 대해 ①에는 함락 사실만 나오지만, ②에는 ‘取’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응주성과 달리 타길성은 함락되어 여진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①의 내용을 보면, 앞에 고려의 9성 축조를 말한 뒤 타길성 함락에 이어 “8성을 모두 함락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여진이 9성 지역을 모두 수복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9성 환부를 여진의 ‘攻取’로 해석하는 맥락에서 구성된 셈이다. 길주는 9성 환부 결정 직전까지 공방이 벌어졌던 곳이고, 9성 철거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따라서 길주 전투와 9성 환부를 연결하면 여진이 먼저 길주를 차지하고 이어 나머지를 수복했다는 맥락으로 인식할 수 있다. 길주 공취는 9성의 ‘환부’를 여진의 ‘수복’으로 치환하여 이해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다음 기사는 자료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이다.

고려가 출병하여 갈라진을 침구하고 나아가 9성을 쌓으니 宗子 贈原王 付實款이 군대를 이끌고 토벌하였다. 왕이 따라서 그 성[其城]을 공격했으나 오래도록 이기지 못하였다. 왕이 우두머리에게 말하기를, “저들의 외부 지원을 막고 보급로를 끊으면 공격하지 않아도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 그 성 5개를 항복시켰다[降其城五].⁷⁸⁾

76) 『金史』 권80, 列傳18 斜卯阿里, “幹塞烏睹本攻駝吉城 阿里鑿墻爲門 日已暮 不可入 以兵守之 旦日遂取其城”

77) 송용덕, 앞의 논문, 2011, 100쪽.

78) 『滿洲金石志補遺』 外編, 莊義王完顏婁室碑(『石刻史料新編』 제1집 23책), “口麗出

위의 기사는 「莊義王完顏婁室碑」에 나오는 내용으로, 고려의 9성 개척에 대한 여진의 반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5개 성’을 항복시켰다는 내용이 보인다. 이에 따르면 여진은 9성 철거 이전에 5개 성을 함락하여 장악한 것이 된다.⁷⁹⁾

그런데 이 기사를 실제 5개 성의 함락 기사로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따른다. 우선 위 기사는 고려의 9성 축조 후 여진이 특정한 성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성을 오래 공격해도 함락하지 못하다가 보급로를 끊어 항복시켰다는 것이므로 ‘그 성(其城)’은 여러 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에 이어 5개 성을 항복시킨 것이라면 그와 연결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지만, 위 기사는 장의왕의 방안을 수용한 것에 이어 곧바로 함락 사실이 나온다.

실상 이 구문이 9성 중에서 5개 성을 함락한 것이라면 표현도 “降其五城”과 같은 식으로 나오는 것이 문법적으로 자연스럽다. 실제 『금사』 사묘아리 열전에는 “取其二城”이라는 표현 형식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구문에서 ‘五’는 함락한 성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어지는 구문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후속 기사는 “위왕 알대를 따라 와□담의 반란을 토벌하였다[從魏王斡帶 討訛□潭叛]”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적이 시작된다. 이에 비추어 ‘五’는 뒤이은 사적 기사의 주어인 ‘王’의 오독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9성 공격 때 “王從之”라는 표현이 있음에 비추어 “從魏王斡帶”의 주어로서 ‘王’이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兵 侵曷曷懶甸 進築九城 宗子贈原王付實款 帥師討之 王從攻其城 久之而不克 王言之於帥曰 宜遏彼外援 絕其餉道 可不攻自下 從之 降其城五”

79) 송용덕은 이 구문을 5개 성의 함락으로 해석하고 공협진, 평용진, 용주, 길주,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추정하였다(송용덕, 앞의 논문, 2011, 101쪽).

이 비문에는 결락된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 구문에도 ‘高麗’의 ‘高’를 비롯해 판독되지 않은 글자가 나타난다. 이는 판독 당시 비문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曷懶甸’을 ‘曷曷懶甸’으로 ‘曷’을 중복 기재하고 있어 전사 과정의 오류도 감지된다. 특히 ‘五’와 ‘王’은 글자가 매우 유사하여 비문에 부분적인 결락이 발생할 경우 오독의 소지가 크다. 이 점에서 ‘五’는 ‘王’으로 고쳐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 장의왕의 활동에서 함락한 성은 5개가 아니라 1개가 된다. 이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갑산 방면의 최전방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宜州이다. 사묘아리 열전에 보이는 두 성의 함락과 같은 사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사묘아리 열전에는 지휘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개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그것은 예종이 서경까지 가서 출정식을 행한 이유, 초기에 계획한 목표점과 그에 따른 전략, 그리고 도중에 성을 상실한 사례에 대한 실증적 검토 등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종은 여진 정벌을 앞두고 개경에서 지휘관을 임명했지만 서경까지 가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는 日官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고, 여진 정벌의 명분과 서경의 상징성에 비추어 고구려계승의식의 관련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정군 편성과도 깊이 연관된다.

숙종 9년의 여진 정벌은 소요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었다. 개경에서 지휘관을 파견하였고, 동원된 군대는 지휘관이 인솔한 중앙군과 현지의 주둔군이 주력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연이어 여진 정벌에 실패한 뒤 고려는 별무반을 설치하고 전국적인 동원체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군대를 확보했지만, 단기간에 동원된 군대의 전투력은 크게 제한되었다. 실제 당시 군대 확보와 더불어 여러 鎭·府의 병력을 상시적으로 훈련시켰다. 이들이 바로 원정군의 주력을 형성했으며, 그 핵심은 북계의 주둔군과 현지인이었다.

북계는 동계에 비해 軍額도 훨씬 많았고, 거란과의 전쟁과 영토 분쟁을 겪으면서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국초부터 유입된 발해 유민이 이 지역에 정착하여 방어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토착화된 발해계 주민들이 여진 정벌에 적극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무반 편성에서 ‘有馬者’의 신기군 편성은 말의 징발을 의미하며, 이 말을 공급받는 기병은 북계 지역에서 충원될 수밖에 없었다. 성종 초 최승로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할 수 있는 土人을 뽑아 방수에 충당하자고 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을 개경에 모은 뒤 동계로 이동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서경에 북계의 군사를 집결시키고 왕이 행차하여 출정식을 거행함으로써 명분과 효율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지휘관 임명 후 서경 행차까지 한 달이나 걸린 것은 이러한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고려의 당초 원정 목표점이 어디였는가 하는 문제는 개척 범위를 결정짓는 하나의 준거가 된다. 이 목표점은 伊位 경계 지역에 있는 瓶項이었다. ‘伊位’는 ‘伊板’과 같은 지명으로, 병향은 이판령을 가리킨다. 고려의 공격 전략도 이에 맞추어 전개되었다. 정벌 초기 左軍은 伊位洞 方면의 石城을 공취하고 福州를 설치하였다. 북주는 이판령에 인접한 端州(단천)에 해당한다.

이위동의 승전과 복주 설치를 끝으로 전투가 일단락되었다. 윤관은 승첩을 고한 뒤 地界를 획정하고 영주·웅주·복주·길주 등 4개 성을 쌓았다. 이판령 북쪽의 길주 방면은 육로를 이용한 복주 방면과 별도로 해로를 이용하여 경략하였다. 웅주성이 포위되자 이곳을 탈출하여 원병을 이끌고 온 척준경은 선박 편으로 길주로 간 뒤 웅주로 내려왔다. 공민왕 때 조돈이 해양(길주)의 조소생을 회유하려 왕래할 때에도 선박을 이용하였다.

길주와 웅주는 해로를 통해 북상한 뒤 이판령 방면으로 내려오면서 축성이 이루어졌다. 영주 방면을 좌군이 담당할 것에 대해 길주 방면은 우군이 담당했는데, 출정 당시 우군은 선덕진의 해안 방면으로 나와 도린포에 집결한 선박을 이용해 북상하였다. 좌군은 영주를 발판으로 갑산 방면으로 추가 진출을 도모하였다. 결국 고려군은 이판령을 목표점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에서 이원적으로 작전을 펼쳤으며, 그 결과 실제 개척 범위는 길주까지 이르게 되었다.

『고려사』의 여진 정벌 기사는 고려의 입장이 투영되어 불리한 상황이 소략한 반면, 『금사』를 비롯한 여진쪽 기록에는 해당 상황이 부각될 수 있다. 『금사』 사묘아리 열전에는 고려의 9성 개척에 맞서 두 성을 취하였고 요해를 방어하여 고려의 반격을 막아낸 기사가 있다. 이 두 성은 철거 기사에 보이지 않는 3성 중 의주와 평양진으로 추정된다. 당시 전황은 영주성을 거점으로 전개된 가한촌 병행 방면의 전투와 연결된다.

「이탄지묘지명」에는 이탄지가 웅주성에 출정간 부친의 부고를 듣고 원흥진에서 배를 타고 웅주로 간 기사가 보인다. 이것은 웅주와 길주와 함께 해로를 통해 연결되는 사정을 보여준다. 그가 도착한 후 여진이 웅주성을 ‘攻陷’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여진군의 성내 진입을 나타낸 것으로서 고려가 웅주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금사』 아도한 열전에는 고려군이 주둔한 해도를 공격하여 전함

을 불태웠으며 陀吉城을 함락하고 곧이어 8성을 모두 함락했다는 기사가 있다. 사묘아리 열전에도 駝吉城을 취한 기사가 있다. 두 성은 같은 곳으로서 길주로 파악된다. 길주는 강화 직전까지 전투가 벌어졌고 가장 먼저 철거되었다. 타길성에 이은 8성의 함락은 동북 9성 환부를 종합하여 무력 수복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다. 「장의 왕완안루실비」에는 “降其城五”라 하여 5개 성을 항복시킨 기사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특정 성 한 곳을 공략한 것으로서 해당 성은 의주로 추정된다. 그리고 ‘五’는 이어지는 기사의 주어인 ‘王’의 오독으로 파악된다.

(원고투고일 : 2019. 12. 29, 심사수정일 : 2020. 2. 6, 게재확정일 : 2020. 2. 18.)

주제어 : 동북 9성, 西京, 渤海, 伊板嶺, 東北面, 吉州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遼史』 『金史』 『滿洲金石志補遺』

김용선,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1.

권영국, 「일제시기 식민사학자의 고려시대 동북면의 국경·영토 인식」, 『史學研究』 115, 2014, 49~96.

UCI : G704-001261.2014..115.004

金昌謙, 「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溟西豪族과 渤海流民에 대한 政策研究」, 『成大史林』 4, 1987, 43~85.

金洛珍, 「고려 숙종·예종대 여진정벌과 별무반의 전술체계」, 『韓國學論叢(국민대)』 47, 2017, 147~182.

UCI : G704-SER000013600. 2017.47..005

方東仁, 『韓國의 國境確定 研究』, 一潮閣, 1997.

윤경진, 「고려후기 東北面의 지방제도 변화 : 州鎮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72, 2015, 333~366.

UCI : G704-001253.2015.. 72.007

윤경진, 「고려 동북 9성의 범위와 ‘公嶮鎮 立碑’ 문제」, 『歷史와實學』 61, 2016, 165~214. UCI : G704-002032.2016..61.011

윤경진, 「고려 예종대 동북 9성 환부의 경위와 배경」, 『震檀學報』 128, 2017, 1~28.

윤경진, 「고려초기 三韓一統意識과 ‘高麗三京’ : 東京 연혁의 역사적 함의」,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353~395.

윤경진, 「고려말 東北面 영토개혁과 영토의식 : 公嶮鎮 두만강북설의 출현 배경」 『한국문화』 88, 2019, 127~164.

李基白, 「高麗州縣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202~228.

李基白, 「高麗別武班考」, 『金載元回甲記念論叢』, 1968 :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1990, 195~208.

이인철, 「고려 윤관이 개척한 동북9성의 위치 연구」 『仙道文化』 23, 2017, 247~292. DOI : 10.35573/JKSC.23.7

- 이정신, 「고려-조선시대 윤관 9성 인식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107~140. UCI : G704-001262.2012..32.003
- 李種明, 「고려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1968, 199~226.
- 鄭修芽 「尹瓘勢力의 形成 : 尹瓘의 女眞征伐과 관련된 몇 가지 問題의 檢討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66, 1988, 1~33.
- 津田左右吉, 「尹瓘征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1913 ; 『津田左右吉全集』 11, 岩波書店, 1963, 307~341.

(Abstract)

The Study on some implications of the occupation for the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during the period of Goryeo Dynasty

Yoon, Kyeong-jin

Examined in this study are some issues related to the Goryeo dynasty's establishment of the so-called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Korean peninsula.

The first issue is why King Yejong personally visited Seogyeong (西京, the Western Capital) to hold the celebration of the launch of the military campaign in this region. It was to weigh on the notion that the campaign was to reclaim the ancient territory of Goguryeo, and also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Balhae(渤海) refugees, who had earlier settled down in the Nor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part of the campaign force. All the troops rallied in the Seogyeong area went over to the Dongbuk-myeon region(東北面), and subdued the Jurchen tribes there through subsequent attacks.

The second one is the question of what was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campaign, and what was the main strategy. Initially, the goal of the campaign was to block Byeonghang(瓶項) point of the Ipan-ryeong (mountain pass), which was serving as a passage route for the Jurchens and their incursions into the Goryeo territory. So one wing of the Goryeo troops moved Northward on foot, while boats landed on the coast of Gilju(吉州) and delivered another wing of soldiers to head Southward. As a result, the Goryeo troops were able to expand the frontier line to the originally planned Ipan-ryeong(mountain pass) to the Gilju region.

The third one is the review of the existence of cases in which some

fortresses were possibly lost during the operation should be clarified with more concrete evidences.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original nine fortresses that were newly built and those which were eventually dismantled or given up. This suggests that there were actually some other (previously unaccounted) fortresses which were either newly created or abolished (or even lost) during those two periods. According to Jurchen records, Goryeo did lose some fortresses, and it seems such occurrences took place in the Gabsan area, which Goryeo reached after securing Yeongju(英州). Also, there is a case in which Goryeo actually protected a fortress yet documented differently in records (as lost). In this article, some earlier mis-readings of certain epitaphs' contents are also rectified and reinterpreted.

Keywords : the Nine Fortresses in the Northeast(동북 9성), Seogyeong(西京),
the Balhae(渤海), the Ipan-ryeong(伊板嶺),
the Dongbuk-myeon region(東北面), Gilju(吉州)

